

글로벌 시황 브리핑: AI 훈풍과 매크로 역풍의 충돌

2026년 9월 23일 장전 전략 및
핵심 관전 포인트

KOSPI 7,000선 공방전 / 미 국채 10년물 5% 임박



27,244

핵심 동력: AI 반도체
랠리 심화

주도주: 마이크론, 샌디스크,
메타(Meta)



4.972%

핵심 리스크: FOMC
매파 기조 고착화

변동성: WTI 원유 100달러
하회 후 \$94.59 재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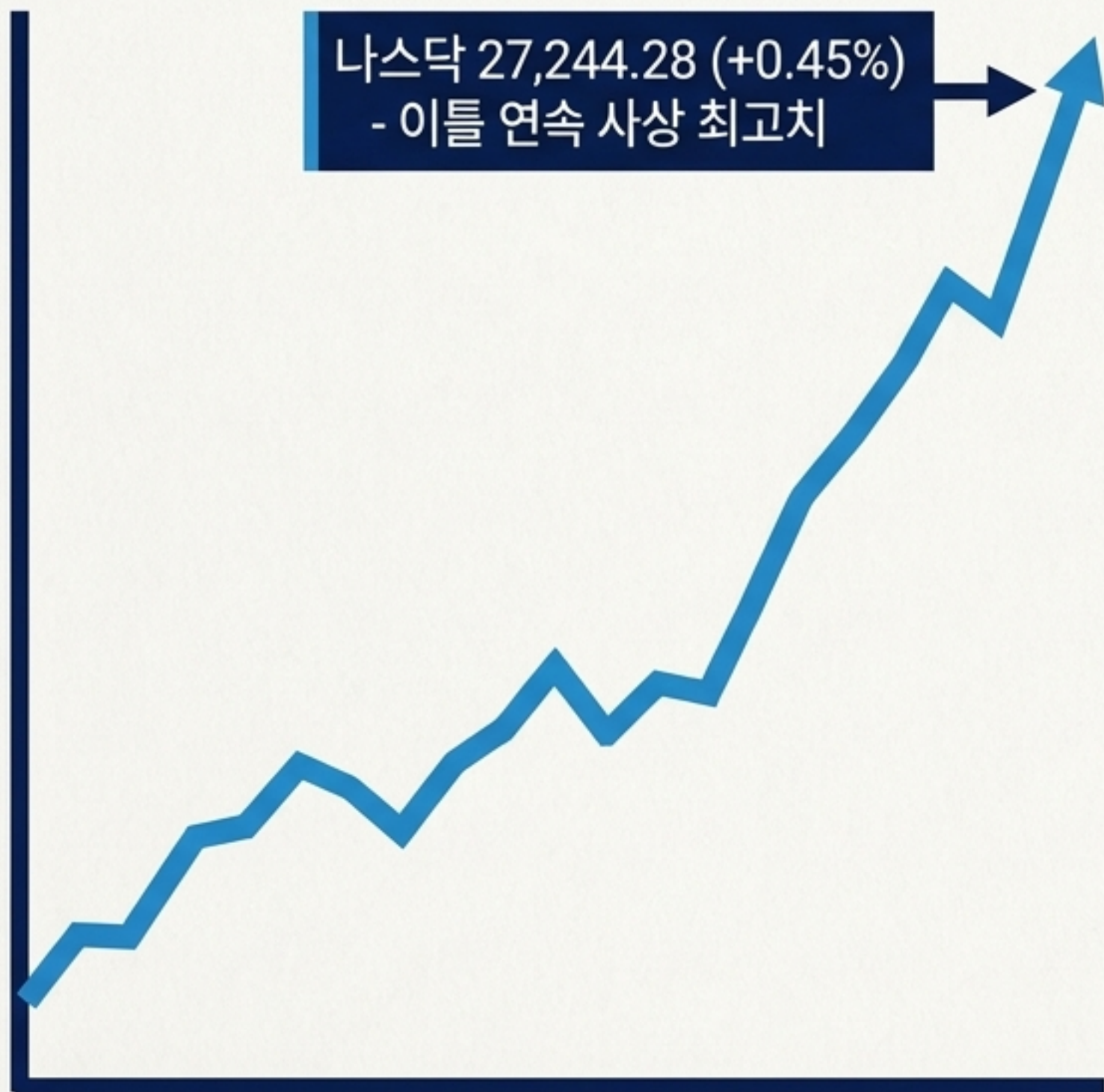


7,000

수급: 개인 이탈 심화,
외국인 수급이 절대적
방향성 결정

액션: 단기 AI 집중,
매크로 경계

미국 증시: 멈추지 않는 AI 엔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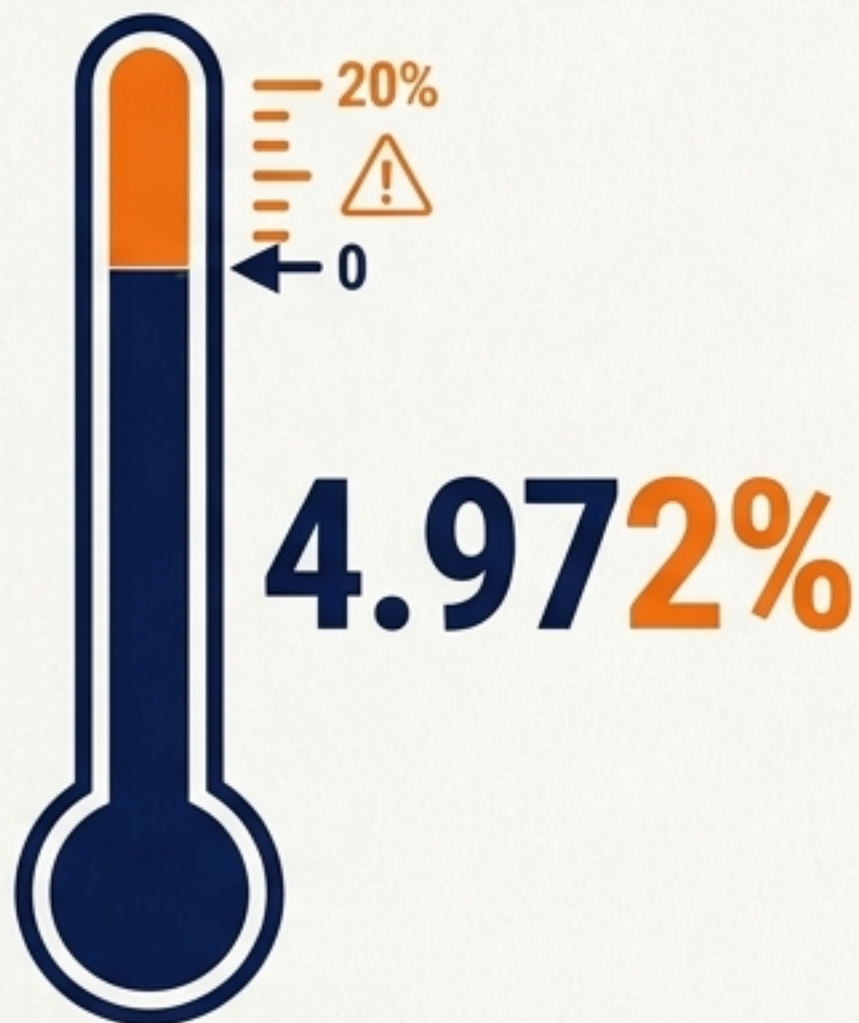
마이크론 (+5%), 샌디스크 (+6.8%) 급등.
철저한 '기술주 중심' 장세.

메타(Meta) AI 모델 '뮤즈' 대박 조짐.
기술 모멘텀 확산.

S&P 500 (7,764) 및 다우지수 (52,301)는
대형주 횡보 속 보합세 (+0.00%) 마감.

FICC 시장: 매크로 압력 게이지 상승

미 국채 10년물



전일 대비 +5bp.
FOMC 매파적 기조 여파로
채권 매도 압력 심화.

WTI 원유



미·이란 회담 및 사우디 공급
회복 조짐에 100달러 하회 후
+\$2.62 급반등. 변동성 극대화.

금 (Gold)



안전자산 선호로 +\$18 반등.
(비트코인 역시 ETF 유입으로 \$67,350 강세 시현)

원/달러 환율 ₩1,358.28 (-5.30원, 원화 강세)

시장 동인 매트릭스: 팽팽한 줄다리기

AI & Tech 랠리 (상태: 강력 / Strong)	매크로 불확실성 (상태: 위험 / Critical)
주요 동인: 반도체 실적 기대감, 기업용 AI 모델 고도화	주요 동인: 연준(Fed)의 고금리 장기화 의지,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
파급 효과: 나스닥 신고가 달성, 아시아 기술주 연쇄 반등 주도	파급 효과: 미 국채 10년물 5% 저항선 근접,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
자금 흐름: 비트코인 및 기술주 중심의 위험자산 선호 유지	자금 흐름: 채권 매도세 및 금(Gold) 등 안전자산 회귀 본능 혼재

 Citi Group 경고: 글로벌 주식 포지셔닝 약화로 인한 단기 숏커버링 리스크 내재

글로벌 증시: 아시아의 반등과 대기 중인 촉매제

유럽: 견조한 상승세
DAX (+0.80%), STOXX 50 (+0.62%).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및 방산주 강세 주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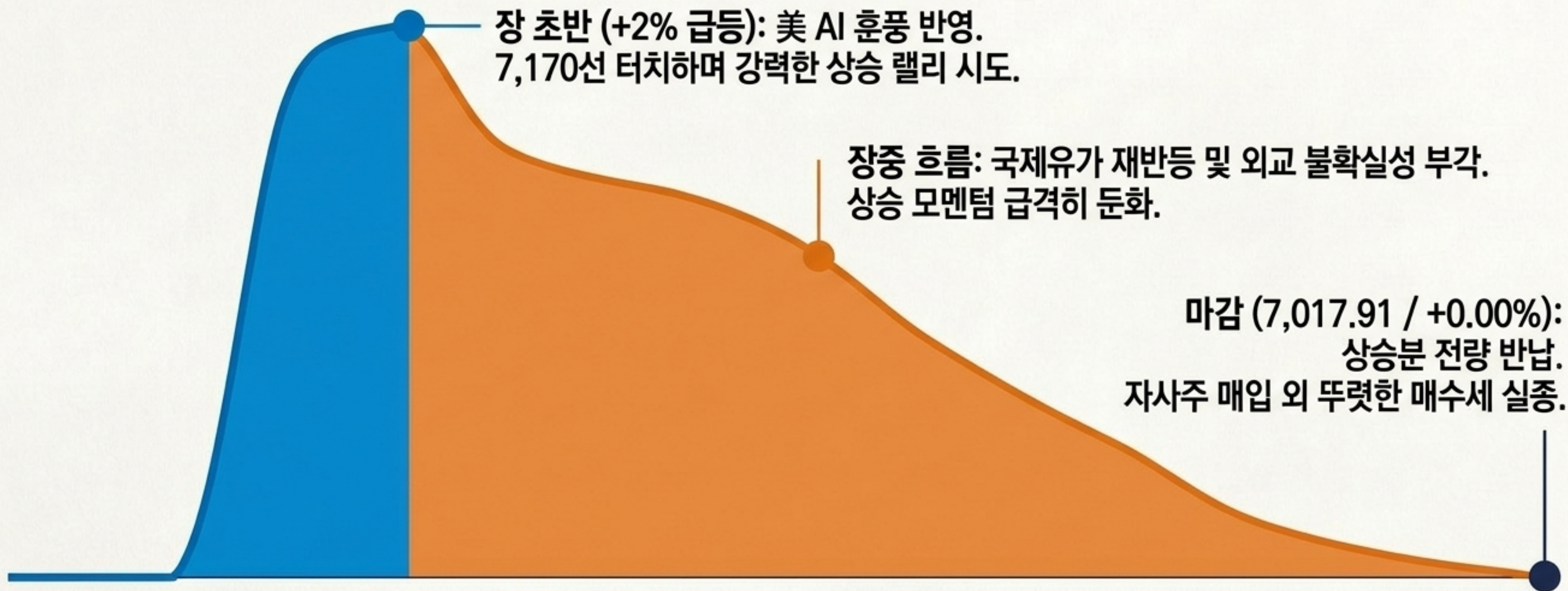
중국: 완만한 오름세
상하이 (+0.45%), 선전 (+0.62%).
본토 증시 정상거래 중 점진적 상승.

중국: 완만한 오름세
상하이 (+0.45%), 선전 (+0.62%).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및 방산주 강세 주도.

일본: 휴장
(추분의 날 공휴일). 엔화 약세 기반의 수출주 모멘텀 대기.

다음 글로벌 변수: '트럼프-시진핑 회담' 결과에 따른 아시아 시장의 구조적 변동성 대기 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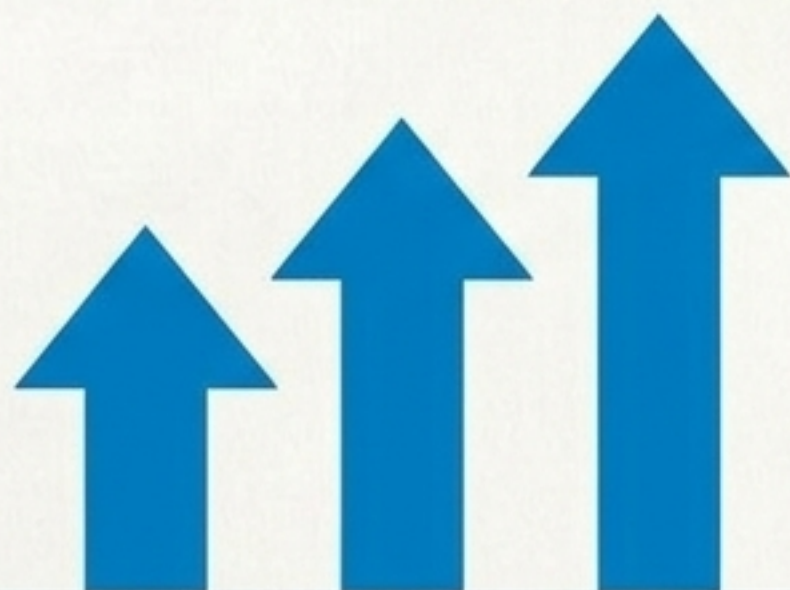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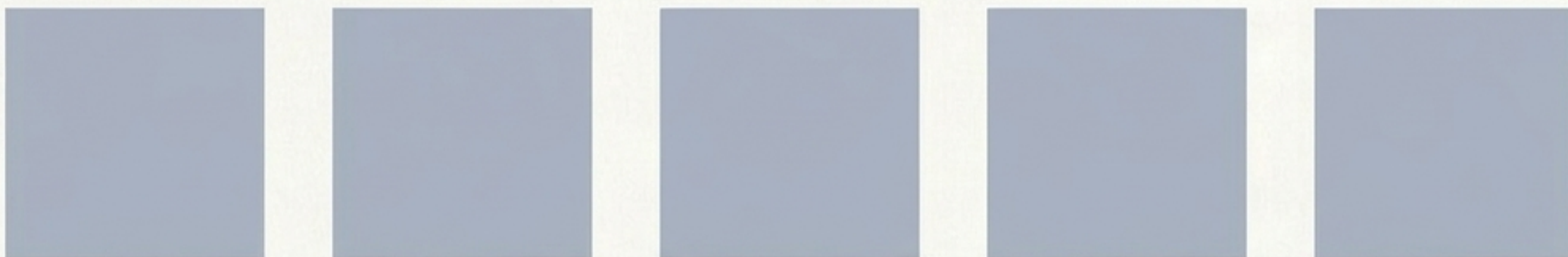
국내 증시 (KOSPI): 7,000선 방어전과 매수세 실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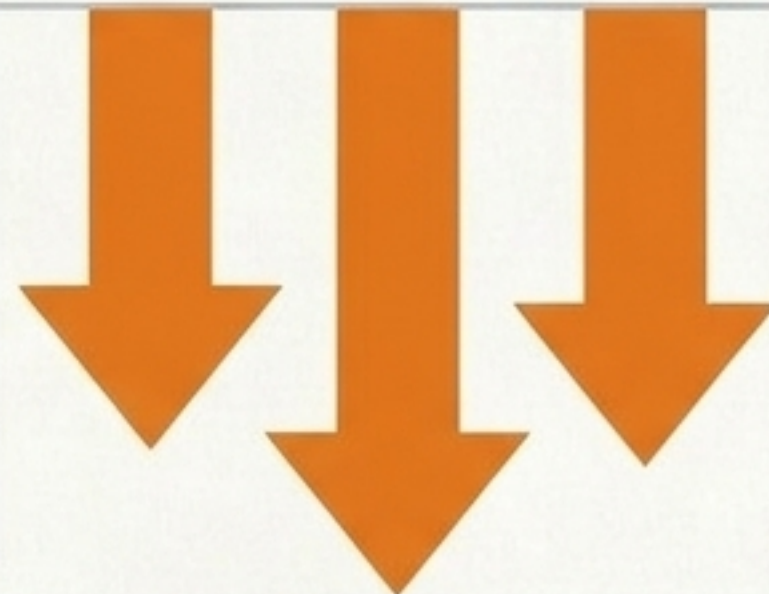
뒷심 부족으로 인한 보합 마감이나, 심리적 저항선인 7,000선 하방 지지력을 확인한 것은 단기적 긍정 요인. (코스닥은 834.38, -0.23% 약보합)

시총 상위 정체 속 섹터별 차별화 심화

시총 상위 1~10위 (삼성전자 276,500원, SK하이닉스 1,840,000원 등) 전 종목 보합 마감. 지수 방어적 성격 뚜렷.



강세 섹터: 은행 (+5.38%),
기계 (+3.30%),
서비스업 (+3.47%)



약세 섹터: 운수장비 (-3.89%),
증권 (-3.22%),
전기전자 (-1.98%)

수급의 키맨 이동: 개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가속화.
향후 지수 7,000선 안착 여부는 전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달림.

Today's Playbook: 장전 핵심 대응 전략



AI 반도체 전이 여부 확인

나스닥 모멘텀(마이크론, 샌디스크)이 국내 소부장 및 반도체 섹터의 초반 갭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즉각 확인. 단기 트레이딩은 AI 밸류체인에 집중.



외국인 현선물 수급 트래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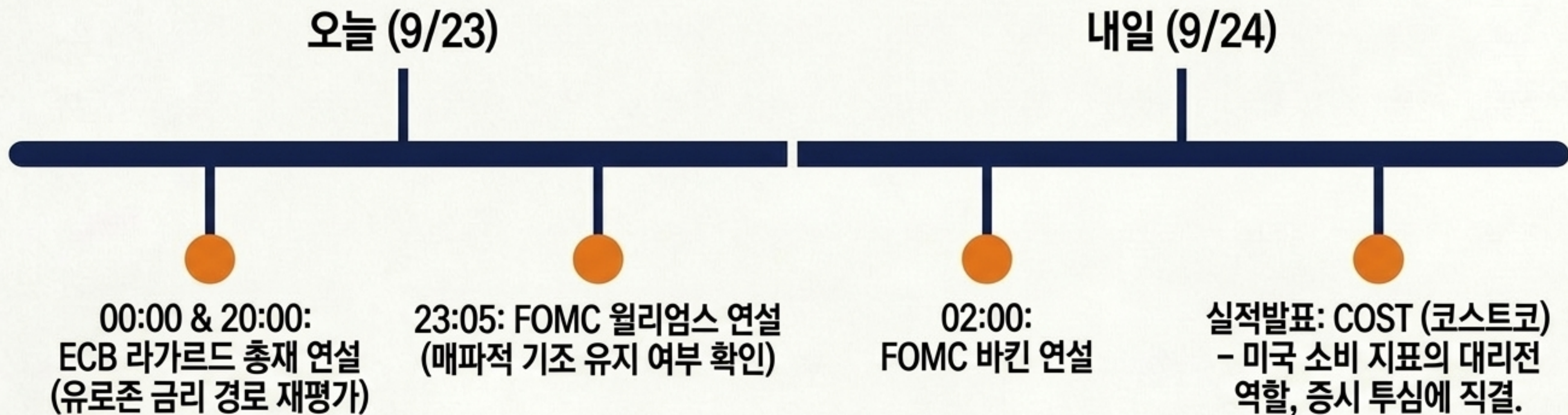
개인 매수세가 실종된 '빈집 장세'.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/매도 포지셔닝이 오늘 KOSPI 7,000선 방어의 유일한 나침반.



금리 및 유가 헤지 (Hedge)

미 10년물 금리 5% 돌파 시 투심 급랭 가능성 상존.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보다는 장중 유가/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보수적 리스크 관리 병행.

48-Hour Volatility Radar: 단기 변동성 촉매제



밤사이 연준(Fed)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국채 금리 5% 돌파 여부를 결정지으며, 이는 곧 익일 국내 증시의 방향성으로 직결될 것.